

## 2015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 제1장 2015년 항공교통서비스 현황

#### 제2절

### 정시성 정보



## 제2절 정시성 정보

- ❖ ‘정시성’이란 항공사가 사전에 계획한 운항스케줄에 따라 실제로 항공기 운항이 정해진 출발 시간이나 도착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이는 항공교통 이용자 및 화물이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본 보고서에서는 연간 발생하는 국내선 정기 여객기의 출발 지연<sup>1)</sup> 및 결항 정보와 국제선 정기 여객기의 출·도착 지연 및 결항 정보를 제공함.
- ▶ 국토교통부의 항공통계 작성 매뉴얼에서 지연은 비행계획서상의 운항시간에서 이착륙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은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결항이란 운항이 취소된 경우, 출발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 교체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를 말함.
- ▶ 각 나라마다 운항 지연이 되는 시간은 상이하고, 외국적항공사의 경우 국내공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운항만 집계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정시성 통계는 다른 나라에서 발표하는 지연율 또는 결항률과는 상이 할 수 있음.

### 1. 지연 현황

#### 가. 국적항공사(국내선)

- ❖ 2015년 국내선 지연은 총 26,112건으로 운항횟수의 약 14.56%를 차지함.
- ▶ 대형항공사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비해 7.06%p 높게 나타남.
- ▶ 저비용항공사 중 진에어의 지연율은 약 21.77%로 타 항공사에 비해 높은 지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티웨이항공의 지연율은 약 13.79%로 5개 저비용항공사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1) 본 보고서는 항공기 출발 지연 정보만 수록하고 있으며,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와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임.

〈표 1-5〉 국적항공사 국내선 지연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52,559	4,860	9.25
	아시아나항공	36,122	5,893	16.31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22,039	3,172	14.39
	이스타항공	13,748	2,466	17.94
	제주항공	23,464	4,105	17.49
	진에어	16,110	3,507	21.77
	티웨이항공	15,294	2,109	13.79
합계		179,336	26,112	14.56

주 : 국내선(출발),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5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나. 국적항공사(국제선)

- ❖ 2015년 국적항공사 국제선 지연은 총 6,841건으로 실제 운항횟수의 약 3.24%를 차지하고 있음.
- ▶ 대형항공사 국제선의 경우,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비해 약 2.44%p 높게 나타났음.
- ▶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지연율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각각 약 3.76%, 약 3.65%로 타 저비용항공사에 비해 높은 지연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1-6〉 국적항공사 국제선 지연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90,267	2,113	2.34
	아시아나항공	67,289	3,217	4.78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10,614	201	1.89
	이스타항공	7,015	264	3.76
	제주항공	18,395	671	3.65
	진에어	11,465	254	2.22
	티웨이항공	6,386	121	1.89
합계		211,431	6,841	3.24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5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다. 외국적항공사(국제선)

❖ 2015년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6.18% 수준임.

▶ 외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항공사는 중국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및 중국국제항공 등 중국 국적항공사로, 이들의 지연율은 각각 약 11.60%, 약 6.26%, 약 4.95%이며, 이는 평균 약 3.24%의 지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이는 중국 내 항공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공항 및 항로혼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외국적항공사의 지연율은 <표 1-7>과 같음.

<표 1-7> 외국적항공사 지연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KLM 항공(네덜란드 항공)	389	25	6.43
길상항공(준야오)	944	27	2.86
델타항공	1,354	88	6.50
드레곤에어	1,022	29	2.84
라오항공	685	9	1.31
럭키항공	26	1	3.85
루프트한자항공	1,198	36	3.01
만달린항공	445	18	4.04
말레이시아	730	60	8.22
몽골	637	71	11.15
바닐라 (구 에어아시아재팬)	174	3	1.72
베트남항공	5,361	162	3.02
부흥항공	241	5	2.07
브이에어	91	0	0.00
비엣젯항공	806	33	4.09
비즈니스항공	30	1	3.33
사천항공	414	25	6.04
사할린스키항공	1,904	37	1.94
산둥항공	4,224	175	4.14
세부퍼시픽	2,562	181	7.06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스카이웍스아시아	575	42	7.30
스쿠트항공	313	14	4.47
시베리아항공	254	6	2.36
심천항공	1,448	177	12.22
싱가폴항공	3,606	98	2.72
아메리칸항공	705	69	9.79
아스타나항공	374	23	6.15
아에로폴로트항공	724	44	6.08
알리탈리아	200	9	4.50
에미레이트항공사	730	9	1.23
에바항공	1,792	105	5.86
에어마카오항공	1,316	28	2.13
에어아시아 엑스	1,831	57	3.11
에어아시아제스트	3,297	495	15.01
에어캐나다	724	37	5.11
에어피치	3,044	158	5.19
에티하드항공	730	19	2.60
영국항공	720	42	5.83
오케이항공	715	88	12.31
우즈베키스탄항공	245	11	4.49
유나이티드항공	1,966	89	4.53
유니항공	40	0	0.00
이디오피안항공	264	24	9.09
인도네시아항공	1,348	36	2.67
인도항공	410	51	12.44
일본항공	4,549	31	0.68
전일본항공	2,188	19	0.87
중국국제항공	9,321	461	4.95
중국남방항공	15,453	967	6.26
중국동방항공	16,460	1,909	11.60
중국상하이항공	2,200	325	14.77
중국천진항공	862	67	7.77
중국춘추항공	3,147	189	6.01
중국캐피탈항공	236	32	13.56
중국하문항공	1,099	130	11.38
중화항공	3,200	157	4.91
체코항공	403	15	3.72
카타르항공	730	8	1.10
캄보디아앙코르항공	32	10	31.25
캐세이패시픽	3,894	291	7.47
타이에어아시아엑스	866	35	4.04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태국항공	4,195	115	2.74
터어키항공	1,131	67	5.92
프랑스항공	720	26	3.61
핀란드항공	718	19	2.65
필리핀항공	4,220	293	6.94
하와이안에어	522	15	2.87
홍콩익스프레스	2,158	70	3.24
합 계	128,912	7,968	6.18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5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라. 최근 3년간 국제선 항공사별 지연율

-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의 지연율은 <표 1-8>과 같음.
  - ▶ 우리나라 국적 대형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연율은 각각 평균 약 2.2%, 약 3.97% 수준임.
  - ▶ 우리나라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최근 3년간 지연율은 약 2.57%이며,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의 최근 3년간 지연율은 각각 평균 약 1.65%, 약 1.99%로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스타항공은 약 4.08%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외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중국동방항공과 중국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의 지연율은 2014년 각각 약 10.13%, 약 5.53%, 약 4.42%에서 2015년 각각 약 11.6%, 약 6.26%, 약 4.95%로 증가하였음.

<표 1-8> 최근 3년간 국제선 항공사별 지연 현황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AMT AIR(TZ)	0.00	-	-
KLM 항공(네덜란드 항공)	8.32	3.39	6.43
길상항공(준야오)	1.27	1.32	2.86
다이나믹항공	14.29	12.73	
대한항공	2.24	2.02	2.34
텔타항공	4.23	7.03	6.50
드레곤에어	1.75	3.65	2.84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라오항공	4.12	2.18	1.31
럭키항공	-	-	3.85
루프트한자항공	2.74	2.17	3.01
만달린항공	5.57	4.56	4.04
말레이시아	1.78	2.75	8.22
메가몰디브에어	0.00	-	-
몽골	12.19	6.68	11.15
미얀마항공	-	0.00	-
바닐라(구 에어아시아재팬)	2.61	3.04	1.72
베트남항공	2.06	2.19	3.02
부흥항공	0.27	2.14	2.07
브이에어	-	-	0.00
블라디보스톡 항공	1.32	-	-
비엣젯항공	5.56	2.03	4.09
비즈니스항공	4.34	6.92	3.33
사천항공	10.91	8.81	6.04
사할린스키항공	6.01	4.49	1.94
산둥항공	7.98	3.77	4.14
세부퍼시픽	6.30	6.24	7.06
스카이웍스아시아	13.19	6.21	7.30
스쿠트항공	1.53	4.15	4.47
스타플라이어	0.62	0.00	-
시베리아항공	-	0.00	2.36
심천항공	19.37	12.67	12.22
싱가폴항공	2.89	2.54	2.72
아메리칸항공	7.97	9.47	9.79
아스타나항공	20.67	21.48	6.15
아시아나항공	3.06	4.06	4.78
아시아아틀란틱항공	-	13.89	-
아에로폴로트항공	11.48	3.41	6.08
알리탈리아	-	-	4.50
에미레이트항공사	2.47	1.78	1.23
에바항공	3.54	2.82	5.86
에어마카오항공	13.95	4.97	2.13
에어부산	1.19	1.88	1.89
에어비쉬켄	0.00	-	-
에어아시아 엑스	3.81	5.81	3.11
에어아시아제스트	13.87	8.09	15.01
에어칼린	4.81	0.00	-
에어캐나다	10.14	6.23	5.11
에어피치	-	-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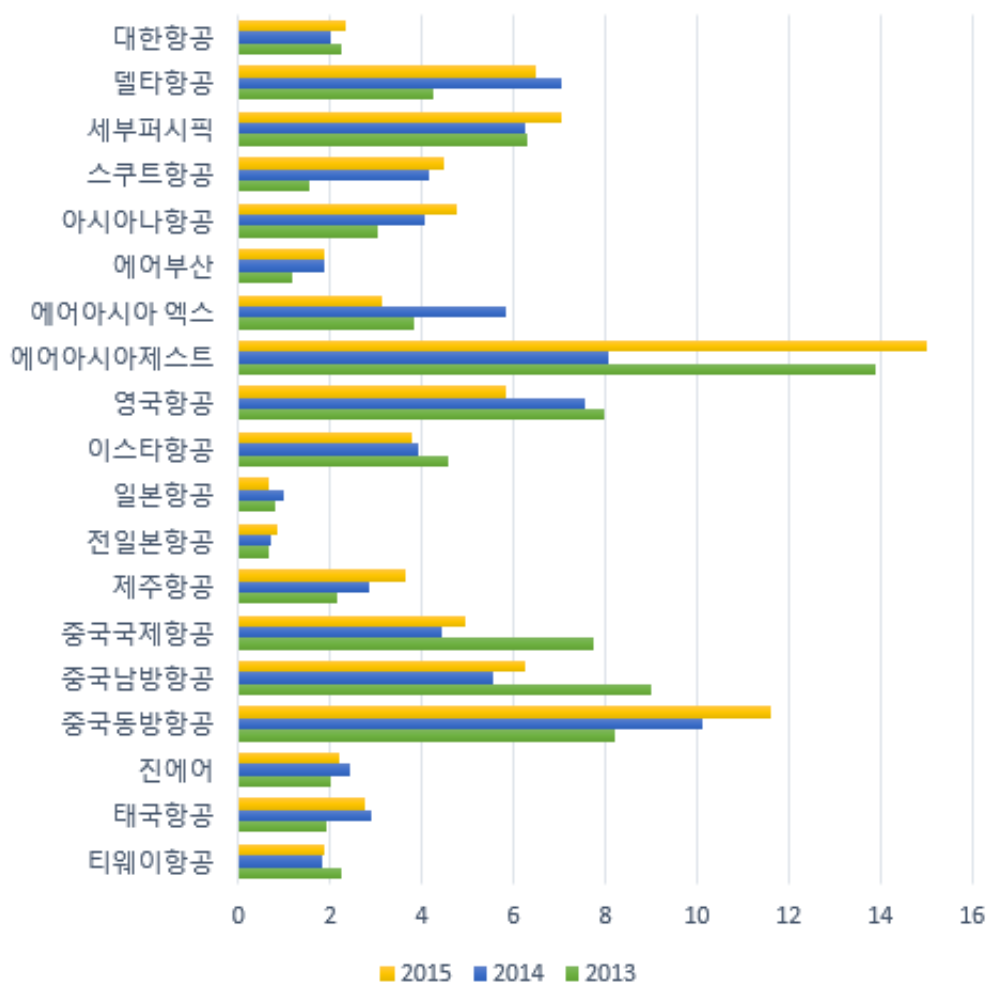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에티하드항공	4.12	4.93	2.60
영국항공	7.98	7.57	5.83
오케이항공	-	11.63	12.31
우즈베키스탄항공	5.34	7.25	4.49
원동항공	0.00	6.67	-
유나이티드항공	7.39	6.69	4.53
유니항공	0.00	-	0.00
유항공사	27.78	-	-
이디오피안항공	41.96	20.16	9.09
이스타항공	4.57	3.92	3.76
인도네시아항공	5.81	3.55	2.67
인도항공	5.26	11.00	12.44
일본항공	0.78	0.98	0.68
전일본항공	0.68	0.69	0.87
제주항공	2.15	2.86	3.65
젯아시아항공	20.00	-	-
중국국제항공	7.74	4.42	4.95
중국남방항공	8.98	5.53	6.26
중국동방항공	8.20	10.13	11.60
중국상하이항공	17.65	21.60	14.77
중국천진항공	31.57	14.66	7.77
중국춘추항공	-	7.33	6.01
중국캐피탈항공	-	0.00	13.56
중국하문항공	21.35	15.38	11.38
중화항공	2.00	3.37	4.91
진에어	2.02	2.45	2.22
체코항공	5.17	2.14	3.72
카타르항공	2.47	3.01	1.10
캄보디아앙코르항공	-	-	31.25
캐세이패시픽	5.21	7.61	7.47
타이아시아엑스	-	3.91	4.04
태국항공	1.93	2.90	2.74
터어키항공	3.70	3.45	5.92
톤레삽항공	11.76	-	-
티웨이항공	2.25	1.84	1.89
프랑스항공	7.89	3.75	3.61
피치항공	1.58	3.40	-
핀란드항공	2.12	3.16	2.65
필리핀항공	7.11	8.18	6.94
하와이안에어	5.21	3.05	2.87
하이난항공	11.01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홍콩익스프레스	9.26	5.73	3.24

주 : 음영부분은 국적항공사, 운항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기입



〈그림 1-2〉 최근 3년간 국제선 주요 항공사별 지연 현황

## 2. 결항 현황

### 가. 국적항공사(국내선)

❖ 2015년 국내선 국적항공사 결항 건수는 총 1,475건으로 운항계획 횟수의 약 0.82%를 차지함.

▶ 대형항공사의 결항률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0.01%p 높게 나타남.

〈표 1-9〉 국적항공사 국내선 결항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53,074	515	0.97
	아시아나항공	36,471	349	0.96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22,263	224	1.01
	이스타항공	13,856	108	0.78
	제주항공	23,554	90	0.38
	진에어	16,210	100	0.62
	티웨이항공	15,383	89	0.58
합계		180,811	1,475	0.82

주 : 국내선(출발),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5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나. 국적항공사(국제선)

❖ 2015년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은 총 303건으로 운항계획 횟수의 약 0.14%를 차지하고 있음.

❖ 대형항공사 국제선의 경우, 결항률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비해 0.02%p 높게 나타났음.

▶ 저비용항공사 국제선의 평균 결항률은 약 0.23%로, 약 0.33%, 약 0.31%를 보인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비슷한 수준임.

〈표 1-10〉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90,361	94	0.10
	아시아나항공	67,367	78	0.12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10,649	35	0.33
	이스타항공	7,021	6	0.09
	제주항공	18,452	57	0.31
	진에어	11,482	17	0.15
	티웨이항공	6,402	16	0.25
합계		211,734	303	0.14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5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다. 외국적항공사(국제선)

- ❖ 2015년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의 평균 결항률은 약 0.34% 수준임.
- ▶ 외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의 결항률은 각각 약 0.72%, 약 0.59%로 외국적항공사 평균 결항률 약 0.34%보다 높게 나타남.
- ❖ 외국적항공사의 결항률은 <표 1-11>과 같음.

〈표 1-11〉 2015년 외국적항공사 결항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KLM 항공(네덜란드 항공)	391	2	0.51
길상항공(준야오)	948	4	0.42
델타항공	1,357	3	0.22
드레곤에어	1,024	2	0.20
라오항공	685	0	0.00
럭키항공	26	0	0.00
루프트한자항공	1,202	4	0.33
만달린항공	445	0	0.00
말레이시아	730	0	0.00
몽골	637	0	0.00
바닐라 (구 에어아시아재팬)	174	0	0.00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베트남항공	5,363	2	0.04
부흥항공	241	0	0.00
브이에어	93	2	2.15
비엣젯항공	810	4	0.49
비즈니스항공	36	6	16.67
사천항공	414	0	0.00
사할린스키항공	1,911	7	0.37
산둥항공	4,250	26	0.61
세부퍼시픽	2,564	2	0.08
스카이웍스아시아	578	3	0.52
스쿠트항공	313	0	0.00
시베리아항공	254	0	0.00
심천항공	1,448	0	0.00
싱가폴항공	3,606	0	0.00
아메리칸항공	709	4	0.56
아스타나항공	374	0	0.00
아에로폴로트항공	724	0	0.00
알리탈리아	200	0	0.00
에미레이트항공사	730	0	0.00
에바항공	1,792	0	0.00
에어마카오항공	1,316	0	0.00
에어아시아 엑스	1,836	5	0.27
에어아시아제스트	3,304	7	0.21
에어캐나다	724	0	0.00
에어피치	3,053	9	0.29
에티하드항공	730	0	0.00
영국항공	720	0	0.00
오케이항공	721	6	0.83
우즈베키스탄항공	245	0	0.00
유나이티드항공	1,983	17	0.86
유니항공	40	0	0.00
이디오피안항공	264	0	0.00
인도네시아항공	1,350	2	0.15
인도항공	412	2	0.49
일본항공	4,552	3	0.07
전일본항공	2,190	2	0.09
중국국제항공	9,341	20	0.21
중국남방항공	15,544	91	0.59
중국동방항공	16,579	119	0.72
중국상하이항공	2,216	16	0.72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중국천진항공	862	0	0.00
중국춘추항공	3,168	21	0.66
중국캐피탈항공	237	1	0.42
중국하문항공	1,102	3	0.27
중화항공	3,219	19	0.59
체코항공	404	1	0.25
카타르항공	730	0	0.00
캄보디아앙코르항공	32	0	0.00
캐세이패시픽	3,896	2	0.05
타이에어아시아엑스	866	0	0.00
태국항공	4,199	4	0.10
터어키항공	1,137	6	0.53
프랑스항공	720	0	0.00
핀란드항공	720	2	0.28
필리핀항공	4,226	6	0.14
하와이안에어	522	0	0.00
홍콩익스프레스	2,162	4	0.19
합 계	129,351	439	0.34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5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라. 최근 3년간 국제선 항공사별 결항률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의 결항률은 <표 1-12>와 같음.

- ▶ 우리나라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항률은 2013년 각각 약 0.09%, 약 0.11%에서 2015년 각각 약 0.1%, 약 0.12%를 기록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 ▶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의 최근 3년간 평균 결항률은 약 0.21%이며, 이스타항공의 최근 3년간 평균 결항률이 약 0.10%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티웨이항공의 최근 3년간 평균 결항률이 약 0.34%를 기록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 ▶ 외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중국동방항공과 중국남방항공과 중국국제항공의 결항률은 2013년 각각 약 0.34%, 약 0.49%, 약 0.2%이었으나 2015년 각각 약 0.72%, 약 0.59%, 약 0.21%로 높게 나타났음.

〈표 1-12〉 최근 3년간 국제선 항공사별 결항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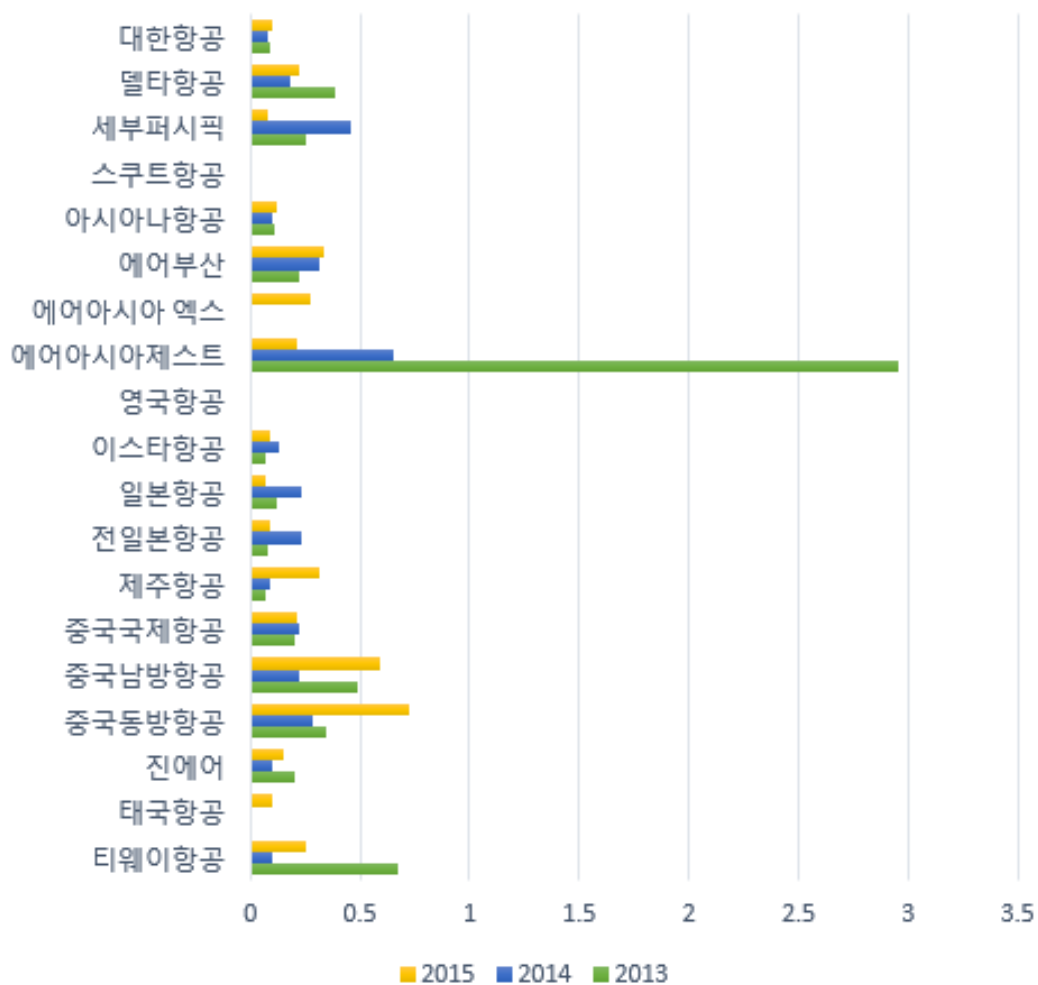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AMT AIR(TZ)	0.00	-	-
KLM 항공(네덜란드 항공)	0.29	0.16	0.51
길상항공(준야오)	0.00	1.62	0.42
다이나믹항공	0.00	8.33	-
대한항공	0.09	0.08	0.10
델타항공	0.39	0.18	0.22
드레곤에어	0.00	0.74	0.20
라오항공	0.00	0.00	0.00
럭키항공	-	-	0.00
루프트한자항공	0.72	0.43	0.33
만달린항공	0.18	0.00	0.00
말레이시아	0.00	0.27	0.00
메가몰디브에어	75.00	-	-
몽골	0.31	0.00	0.00
미얀마항공	-	0.00	-
바닐라(구 에어아시아재팬)	1.87	0.00	0.00
베트남항공	0.00	0.23	0.04
부흥항공	0.41	0.00	0.00
브이에어	-	-	2.15
블라디보스톡 항공	0.20	-	-
비엠텐항공	0.00	0.51	0.49
비즈니스항공	0.18	0.36	16.67
사천항공	0.00	0.00	0.00
사할린스키항공	1.19	1.01	0.37
산둥항공	1.23	0.81	0.61
세부퍼시픽	0.25	0.46	0.08
스카이웍스아시아	0.00	0.00	0.52
스쿠트항공	0.00	0.00	0.00
스타플라이어	0.27	0.55	-
시베리아항공	-	14.29	0.00
심천항공	0.00	0.15	0.00
싱가폴항공	0.00	0.00	0.00
아메리칸항공	0.85	0.55	0.56
아스타나항공	0.00	0.00	0.00
아시아나항공	0.11	0.10	0.12
아시아아틀란틱항공	-	0.00	-
아스타나항공	-	-	0.00
아에로폴로트항공	0.00	0.00	0.00
알리탈리아	-	-	0.00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에미레이트항공사	0.00	0.00	0.00
에바항공	0.00	0.00	0.00
에어마카오항공	0.00	0.16	0.00
에어부산	0.22	0.31	0.33
에어비쉬책	0.00	-	-
에어아시아 엑스	0.00	0.00	0.27
에어아시아제스트	2.95	0.65	0.21
에어칼린	0.00	0.00	-
에어캐나다	0.00	0.00	0.00
에어피치	-	-	0.29
에티하드항공	0.14	0.00	0.00
영국항공	0.00	0.00	0.00
오케이항공	-	1.37	0.83
우즈베키스탄항공	0.96	0.96	0.00
원동항공	0.00	0.00	-
유나이티드항공	0.35	0.32	0.86
유니항공	0.00	-	0.00
유항공사	18.18	-	-
이디오피안항공	0.00	3.93	0.00
이스타항공	0.07	0.13	0.09
인도네시아항공	0.15	0.00	0.15
인도항공	0.00	1.68	0.49
일본항공	0.12	0.23	0.07
전일본항공	0.08	0.23	0.09
제주항공	0.07	0.09	0.31
젯아시아항공	0.00	-	-
중국국제항공	0.20	0.22	0.21
중국남방항공	0.49	0.22	0.59
중국동방항공	0.34	0.28	0.72
중국상하이항공	0.81	0.50	0.72
중국천진항공	0.00	0.00	0.00
중국춘추항공	-	0.82	0.66
중국캐피탈항공	-	0.00	0.42
중국하문항공	0.54	0.63	0.27
중화항공	0.12	0.15	0.59
진에어	0.20	0.10	0.15
체코항공	0.00	0.00	0.25
카타르항공	0.00	0.00	0.00
캄보디아앙코르항공	-	-	0.00
캐세이패시픽	0.08	0.02	0.05
타이아시아엑스	-	0.00	0.00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태국항공	0.00	0.00	0.10
터어키항공	0.00	0.00	0.53
톤레삽항공	1.92	-	-
티웨이항공	0.67	0.10	0.25
프랑스항공	0.00	0.00	0.00
피치항공	0.34	0.28	-
핀란드항공	0.65	0.32	0.28
필리핀항공	0.40	0.41	0.14
하와이안에어	0.00	0.00	0.00
하이난항공	0.91	-	-
홍콩익스프레스	0.00	0.00	0.19

주 : 음영부분은 국적항공사, 운항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기입



〈그림 1-3〉 최근 3년간 국제선 주요 항공사별 결항 현황